

Hi, Mumbai

V V

무빙스쿨

마음이 청년을 안으면, 청년은 마을을 안다.



1. 주제선정이유
2. 무빙스쿨 가는길
3. 성리사나마을
4. 뭐든지도서관
5. 창신동나들이
6. 자비할적불포전
7. 느낌



1. 주제 선정 이유

Hi, Mumb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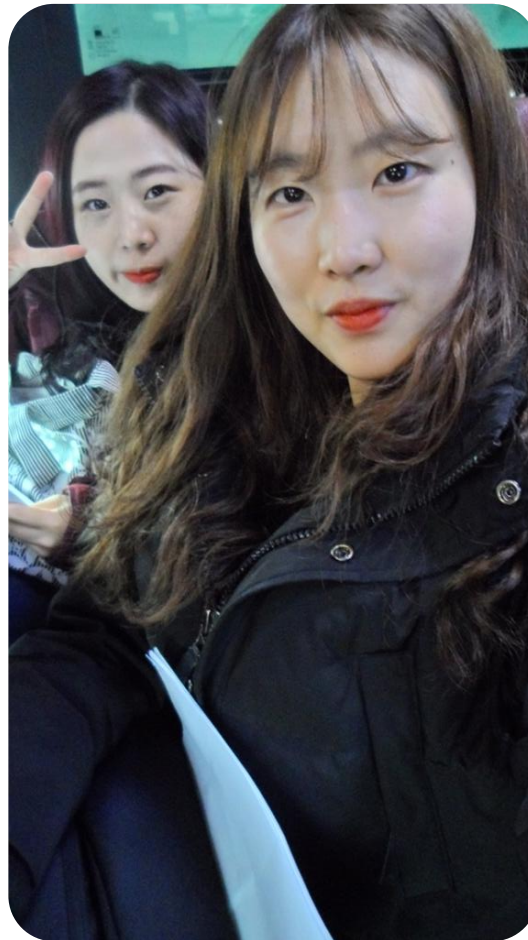
마을이 청년을 안으면, 청년은 마을을 안는다.

청년들이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에는 무지하다.

그 이유를 팀원들과 함께 토론해보니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에는 마을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우리는 마을을 담고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성리산 학교와 뭐든지 도서관으로 무빙스쿨을 떠나보고자 했다.

2. 무빙스쿨 가는길

Hi, Mumb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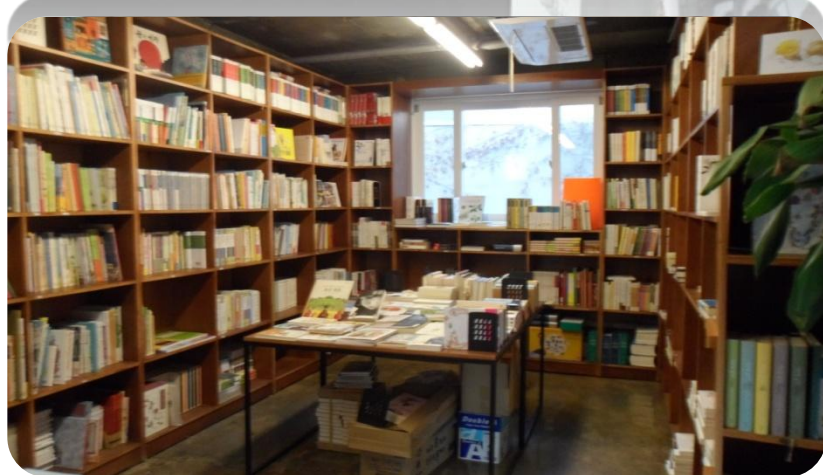


휴대폰과 돈을
모두 빼앗겼지만
그래도 우리는
설렘을 안고 출발했다.
그런데(ㅋㅋ)
소름돋게
시계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감으로 시간을
맞춰갈수밖에 없었다.
더 소름돋는건
시간을 다 딱 맞췄다



3. 성미산마을

Hi, Mumbai



성미산 마을에 처음 도착한 우리는

동네책방 개동이네 책노이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 서점이 잘 취급하지 않는 소형출판사나 1인 출판사의 책을 팔고있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이들의 책방과 마을주민들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마을의 아이들이 놀러와 책을 읽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 이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하는 수업이 진행되는데 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수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동네 책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이 동네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도가 분산되어 공간유지가 힘들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만 여겼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3. 성리시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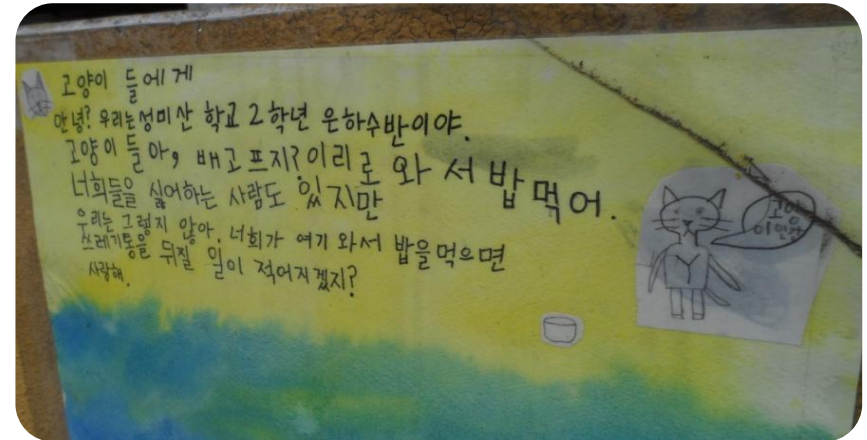
Hi, Mumbai



우리는 동네책방에서 '두루'라는 마을 화폐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헌 옷을 팔거나 품 교환을 할 시 받을 수 있는 마을 화폐로
마을에서 연계된 여러 기관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품을 나누어 줬을 때 또 다시 품으로 교환하거나
그리지 못할 경우에는 돈이 아니라 두루를 사용하여 감사함을 표시하고는 한다.
두루는 자꾸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려는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어보고자 시작되었다고 한다.

3. 성미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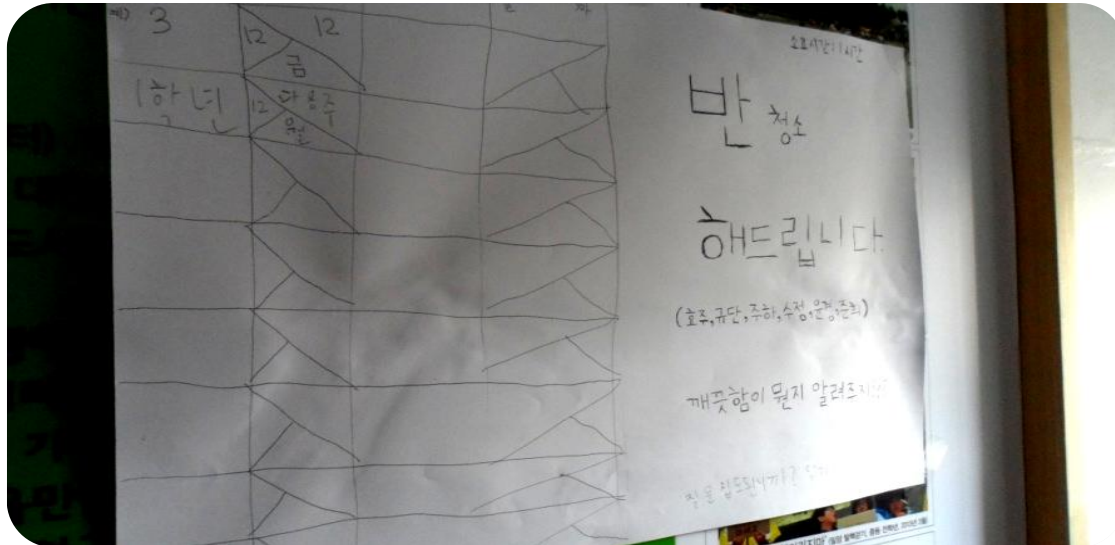
Hi, Mumb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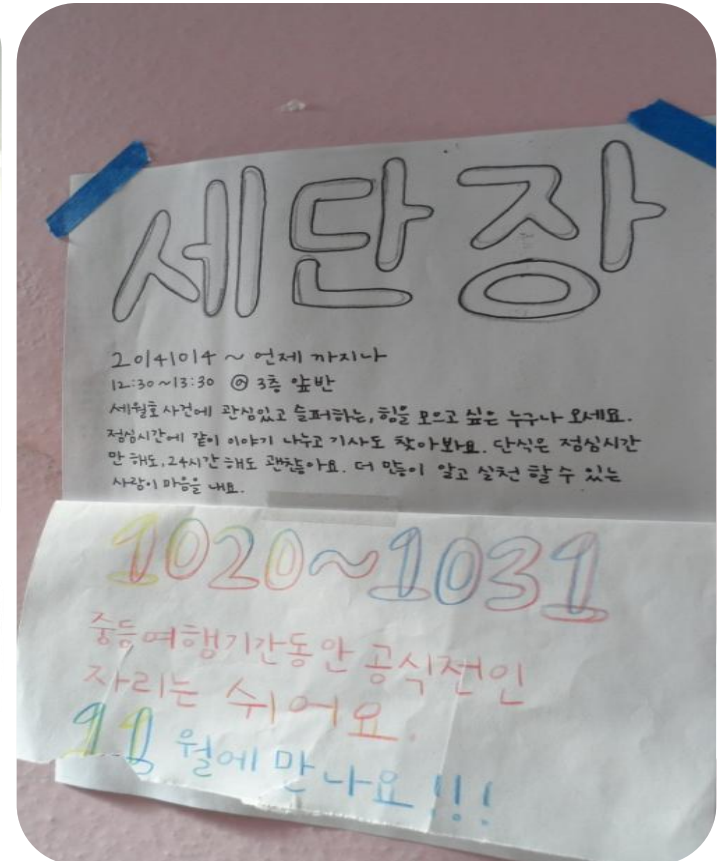
성미산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보인 것은
아이들이 만든 편지와 고양이 급식소였다.
성미산 학교가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고양이도 친구처럼 여기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어
엄마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다.

3. 성리시산마을

Hi, Mumbai



학교 안 게시판 군데군데 이런 포스터들이 부착되어 있었다.
'반 청소 해드립니다. 깨끗함이 뭔지 알려주지'
'세월호 사건에 관심있고 슬퍼하는 누구나 오세요'
아이들이 직접 모임을 만들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우리들의 어렸을 적 모습과는 대비되어 보였다.



3. 성리산마을

Hi, Mumbai

생태적 가치 '생태적 가치'는 '환경'과 달리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그것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가치로 성리산 학교가 추구하는 것.

-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와의 관계도 생각하여 마을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교육
- "살과 유리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싶다"

마을 안에서 삶을 꾸려내는 아이

- 지금 우리는 고향이 없는 삶을 살고있다.
- 그러나 모두가 마을을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
- 단순히, 개인의 삶도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리산학교

야사시한 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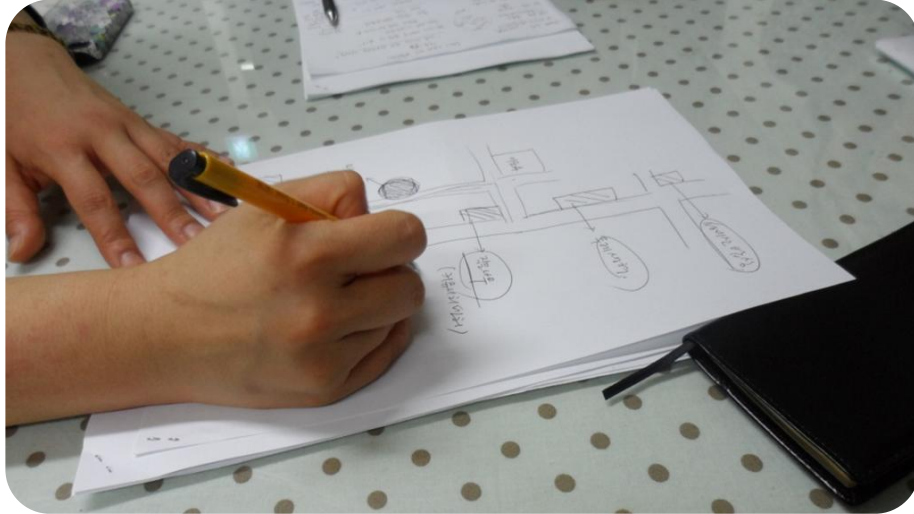
-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 (타인으로서의 의무)
- 내 상태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의 의무)

우리들에게 하고픈 말

-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많이 하라
- 자신이 주민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그것이 마을 공동체다.
- Good work (E.F 슈마허), 누가나를 쓸모있게 만드는가?

3. 성미산마을

Hi, Mumbai



백흥미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미산 마을 지도를 그려주시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이에 우리는 놀랐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할뿐더러, 안다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 마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밥상특공대'는 백흥미 선생님께서 성미산학교의 가장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직접 반찬을 나눠드리면서 마을의 어른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3. 성리시나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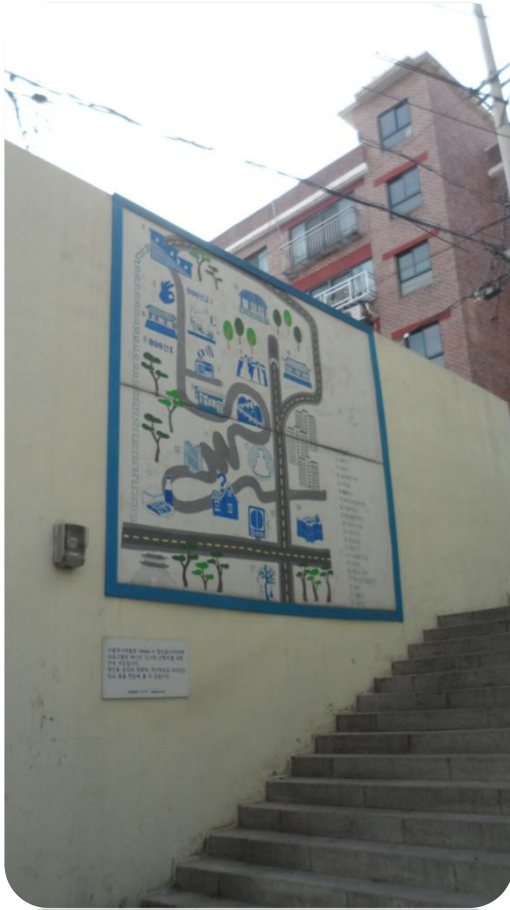
Hi, Mumbai



신기하게도 선생님께서는 '인도'에서 반년정도 살다 오셨다고 한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동안 배워와야 하는 정보와, 유용한 팁을 전수해주셨다. 그것은 바로 **'바이아'** 오빠라는 뜻으로 모든 물건을 예수리할 때 사용된다고 한다. **짱!**

4. 뭐든지도서관

Hi, Mumbai



성리산 마을을 둘러본 후, 도착한 창신동!!!
처음 든 생각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지하철 역을 나서자마자 눈에 보이는 작은 가게들,
좁은 길가에는 많은 오토바이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지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가파른 언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4. 뭐든지도서관

Hi, Mumbai



약속시간 5분전,
높은 언덕과 좁은 골목길 사이를 헤치고 겨우 도착한 뭐든지 도서관!!!

아이들이 삼삼오오 둘러 앉아 책을 읽고,
마을 어른들이 그 안에 따뜻함을 더해주는 광경을 상상하고 갔었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풍경은 뭐든지도서관을 홀로 지키고 계시던
사서선생님 한 분 이셨다.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 속 뭐든지도서관은
마을주민들과 더불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직접 본 뭐든지도서관은 사실 그런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사서 선생님과 인터뷰 속에서도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4. 뭐든지도서관

Hi, Mumbai

사서 선생님께서 마을의 문제나 어려움에 관한 질문을 할 때면
선생님께서는 “이건 비밀!”이라고 말씀 하시거나
에둘러 답변을 해주시며 조심스러워 하셨다.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선생님께서 마을에 대한 애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준비한 질문이 너무 날카롭게 날이 서있어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변화해 나갈 때 보람을 느낀다.”
사서 선생님께서 말해주신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뭐든지도서관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많은지는 모르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도서관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 같다.



5. 창신동나들이

Hi, Mumbai



뭐든지도서관 가서 선생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서둘러 오느라 둘러보지 못했던 창신동 마을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근처에 있던 낙산공원에 올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뭐든지도서관+창신동 나들이를 함께 한 호진 단원이 찍어준 사진들.....아..잘찍었...다... ㅎ..
감.....감..... 감사합니다!!!!!!! ;-0

5. 창신동나들이

Hi, Mumb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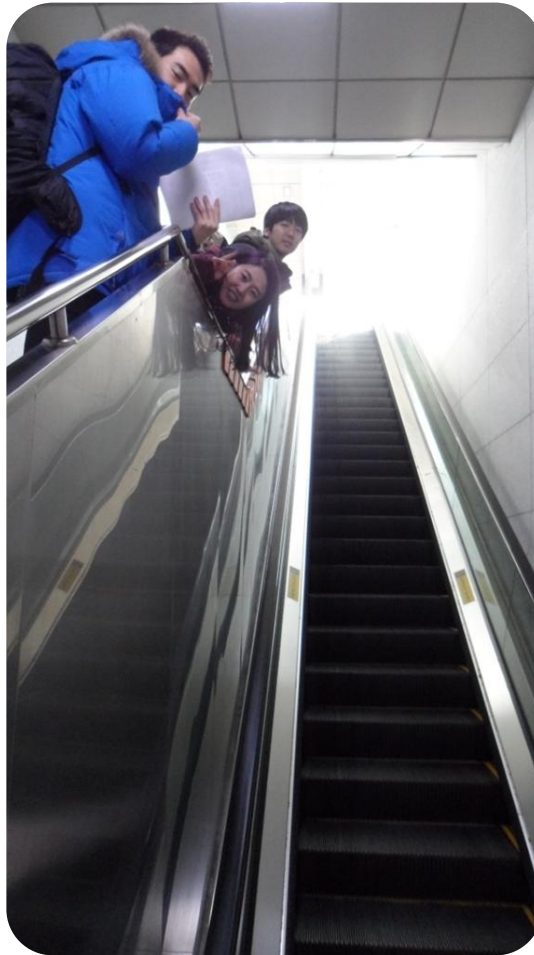
성리시안마을에서 산 1000원짜리 멘토스와
두레시생협에서 산 1800원짜리 배방 하나로
점심을 해결하고
파주를 떠난지 7시간 만에 먹은
창신동 밥집!



칼국수랑 국밥이랑 해장국 ♥ ♥ ♥
배고파서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폭풍흡입!!!!!!

6. 자비할적불포진

Hi, Mumbai



6. 자비날 기록보존

Hi, Mumbai



창신동에서 광화문 역까지 우리는 걸어갔다.
가는 길에 청계천이 나왔는데 승희오빠가 우리와 함께 하기 싫어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청계천은 여자친구랑 간다' 라는 개똥같은
신념때문이었다. 야호! 우리와 사진찍기도 거부했다^o^ 평생다시 못볼듯.
우리는 광화문역에 도착했는데 길을 잃어 경찰서에 들어갔더니
정말 맛있는 도넛도 주었고, 기다리는 시간 하나 없이 버스를 탔다.
'하객 이득'은 이럴때 쓰는 말인듯!

7.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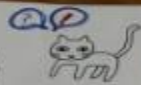
Hi, Mumbai

나영 : 사전 조사시에 성공적인 예라고 해서 '유토피아' 같은 특별한 마을의 모습을 떠올렸었다. 하지만 그 마을들의 모습들은 생각보다 내가 살고있는 마을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것? 그정도?

예현 : 성미산 학교의 백흥미 선생님께서 해주신 '느슨한' 이라는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을의 정체성을 강요하고 모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한 마을 안에서 개인의 삶을 영위하되, 나의 마을이라는 자각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내가 가졌던 마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하지만 성미산과 창신동 두 마을을 함께 다니오면서, 내 마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막는 제약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승희 : 숨바꼭질하듯 숨어있는 성미산마을 공동체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마을에 관심이 없으면, 이러한 기관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동네에 뭐가 있는지, 옆 아파트 이름은 무엇인지도 몰랐던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 자신부터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야 한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도원 : 재밌었다. 유익했다. 이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마을을 찾아가는 것까지 팀원들이 함께하며 많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마을을 직접 보고, 마을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미산 학교

생태적 가치를 가르치는

やさしい 한 사회를
꿈꾸는 '대안학교' 말고 '대안' 학교.

① 새로운 삶의 방식 의지로는 넘수 없는 현실의 벽

② 기존의 기존과의 큰 차이 느낀할 필요성

③ 지역사회의 ^{미치는} 큰 영향 관심의 중요함

④ 지역사회와 한곳에 어우러지는 작은 것이
모습 아름답다

마을이 청년을 안으면

하이,
뭉 바이

워든지도서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고 서로 힘이되는
동네를 꾸려나가려는 공간!



고향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
터전으로의 의미를 가진 삶을 꾸려나갈 것.

아이들에게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 + 잠재력

청년은 마을을 안는다!

Hi, Mumbai

우리의 기억속에
그대를 남아있게

2015년 1월 13일 무빙스쿨, 뭄바이팀